

0913(화) 다니엘 10-12장 <오늘>을 살라!

다니엘은 지혜자로서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

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하고(10:3-4),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앓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. 환상을 보는 일은 때로 매우 고통스런 일이었지만,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(10:8,16/ 10:9-10,19).

다니엘이 겸비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던 날,
하나님은 보석 같은*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.
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영적전쟁으로 인해
한참 후에야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(10:13).

* <큰 은총을 입은 자야, 9:23,10:11,19> : 매우 소중하고 아끼는

바벨론 함락, 고레스 칙령 등이 있기까지
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모든 역사를
승리로 끌어가고 계십니다(10:20, 11:1, 압6:12/ 10:13,21).

다니엘은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,
구체적인 말씀이었음에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(10:21-11장,12:8).
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들을 보이시는 이유는
<이미 다 안다. 내가 한다. 염려 마라>는 것이지
다니엘에게 그 일을 대비하란 말씀이 아닙니다.

하나님은 다니엘을 현실로 돌려보내십니다(12:9).
다니엘과 이스라엘이 할 일은 <오늘>을 사는 것입니다.
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사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.
호들갑 떨거나, 절망감, 무력감, 패배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.
끝 날,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루실 것입니다(12:1-3).

“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
끝날에는 네 봇을 누릴 것이라(12:13)”

나는 <오늘>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까?

- ❶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느라 <오늘>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?
- ❷ 매일 <오늘>의 사명을 듣고 순종하는데 힘쓰고 있습니까?